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8월 17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37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성도가 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엄 경 애 -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시편 23편)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저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성도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늘 저와 함께하시고 저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인생길에 다가온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오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던 23살 처녀 시절에 복음을 듣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26살에 결혼하여 잠시 시골에서 살다가 1980년에 안양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예배를 소홀히 하며 세상일에 몰두할 때 오히려 재산을 다 잃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았는데,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는 나이 많은 여성 집사님이 가게에 오셔서 매주 꼬박꼬박 복음지를 전해주며 전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복음지에 실린 성도님들의 간증문과 조용목 목사님의 말씀을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예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팔과 다리가 몹시 추시고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들 치료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병원에 간다고 말하고 은혜와진리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와진리의 말씀에 감화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신유와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곧 낮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제 심령에 신령한 위로와 힘이 임하는 것을 느끼며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저의 믿음과 기대가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저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의 상한 마음도 고쳐 주시고, 침체되어 있던 생활에도 활력이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후 구역장 직분을 받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전도하는 생활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비와 권능을 베푸셔서 친정어머니가 오랜 시간 심하게 앓던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어머니의 영혼이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위낙술을 좋아하여 얻은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교구와 구역에서 권사님과 구역장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제 나이 일흔이 넘는 지금, 천사처럼 변한 남편과 함께 역시 제 눈에는 천사처럼 보이는 90세가 훌쩍 넘으신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큰 복과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정녕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예배에 처음 참석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 붓듯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지혜와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예배에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강해설교 말씀 중에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영적 신분에 관해 교훈해 주시면서, 전도서 3장 말씀을 비롯하여 어떤 사물이나 상태가 상반된 것을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기록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읽어 주셨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혈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 때 제 귀에 살아 계신 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며 ‘아, 이렇게 귀한 말씀이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마다 또 새로운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무한히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제가 변함없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권사가 되어 더 교회에 충성하며, 작은 힘이나마 기도와 헌신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새삼 깊이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병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3권 (2단원 : 인간의 타락과 구원)

(제11과) 율법을 주신 목적

- **본문** : 로마서 3:19-20, 갈라디아서 3:23-26
- **요절** :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
- **찬송** : 202장(새찬송가 268장), 205장(새찬송가 287장)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 시키기 위해 모세를 영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푸셔서 강박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넘실대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후, 시내 광야를 행군하여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시내산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거기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하고 지켜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은 큰 은혜요 복입니다. 그들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까닭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적이 많았습니다.

1. 죄를 죄로서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중의 하나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무지하여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짓고서도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경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롬 5:13)는 말씀이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롬 7:7)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고 해서 형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역사적인 사실이 이를 증거합니다. 물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인간의 양심이 각 사람에게 율법의 역할을 대신하였습니다(롬 2:14~15). 그러나 죄로 물든 인간 양심은 바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국법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무엇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알 수 있듯이, 인간들은 율법의 기준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죄를 죄로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행함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 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자 그는 “어느 계명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시니,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 자신 온전하다고 자부할 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기준에는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 사실을 깨달았으므로 근심하며 떠나갔던 것입니다. 비단 이 청년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까닭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려는 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3.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그 성격이 선한 것으로서(롬 7:12), 이를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레 18:5). 하지만 인간은 본성이 부패하고 악해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으므로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 오히려 인간을 정죄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마치 거울이 우리의 얼굴에 묻은 오물을 비추어 주지만 그것을 제거해 주지는 못하듯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줄 뿐 그것을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은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절망하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갈 3:23~24) 하였습니다.

몽학선생이란, 어린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집에서 아이와 함께 기거하면서 기초적인 공부를 가르치거나 옷입는 법, 식사하는 법, 인사하는 법 등과 같은 생활 전반에 걸친 교육을 책임진 종을 말합니다. 아이는 비록 아들이라도 어렸을 때는 몽학선생의 지도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인이 되어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으면 몽학선생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까지만 우리를 간섭할 뿐,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죄로서 알게 하고, 또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함으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